



사물에 더 가까워지세요.

라이카 카메라 '바리오-엘마-SL 100-400 f/5-6.3'렌즈

및 라이카 익스텐더-L 1.4x 신제품 출시

- 컴팩트한 디자인과 가벼워진 무게의 신제품
- 400mm 초점거리부터 익스텐더 장착 시 560mm 초점거리 확보를 통해 강렬하고 정확한 촬영 가능



[사진 제공: 라이카 카메라 코리아]

라이카 카메라에서 컴팩트한 망원 줌 렌즈 '바리오-엘마-SL 100-400 f/5-6.3'를 출시했다. 새롭게 출시한 '바리오-엘마-SL 100-400 f/5-6.3'은 익스텐더-L 1.4x 를 활용해 최대 560mm 의 초점거리에서 촬영이 가능하다. SL 시스템 제품 중 가장 초점거리를 자랑하는 제품으로, 망원 줌 렌즈를 통해 찰나의 순간에 더욱 가까이 촬영이 가능하고, 사진과 영상 결과물을 최상의 퀄리티로 만나 볼 수 있다.

'바리오-엘마-SL 100-400 f/5-6.3' 렌즈는 스포츠, 조류 및 자연 사진 촬영에 특화 되어있다. 100-400mm 라는 긴 초점거리로 멀리 있는 피사체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 빠르고 정확하게 라이카의 감성과 기술력이 담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. 또한, 광학 스테빌라이저와 정확한 오토 포커싱 기능을 통해 흔들림 없이 선명한 결과물을 담아 낼 수 있다. 컴팩트한 디자인과 무게도 특화된 기능 중 하나다. 1,482g 의 가벼운 무게는 이동에 편리성을 더했으며, 조작이 간편한 심플한 디자인으로 언제나 빠르게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. 또한, 아쿠아 듀라(aqua dura) 코팅을 통해 굵은 날씨에도 걱정없이 촬영할 수 있다.



'바리오-엘마-SL 100-400 f/5-6.3' 렌즈는 타 기종과의 호환성도 좋다. L-마운트를 탑재하면 SL 카메라 외에도 다양한 라이카 시스템에도 사용가능해 효율성을 높였고, ARCA-SWISS (알카스위스) 방식의 플레이트 시스템과는 별도의 악세서리 없이 호환 가능하다.

새롭게 출시한 '바리오-엘마-SL 100/400 f/5-6.3' 제품은 400m 초점거리까지 촬영이 가능하지만, 라이카 익스텐더-L 1.4x 를 별도로 장착하면 560mm 에 달하는 확장된 초점 거리와 조리개 값을 인식해 더욱 피사체에 가까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. 200g 이 되지 않는 가벼운 무게와 컴팩트한 사이즈로 어떤 상황에서도 편리하게 결합할 수 있어 범용성을 높였다.

라이카 카메라에서 새롭게 출시한 '바리오-엘마-SL 100-400 f/5-6.3' 렌즈와 '라이카 익스텐더-L 1.4x' 제품의 자세한 사항은 라이카 카메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- 라이카 카메라 홈페이지 <https://www.leica-store.co.kr/>